

WEEKLY



startup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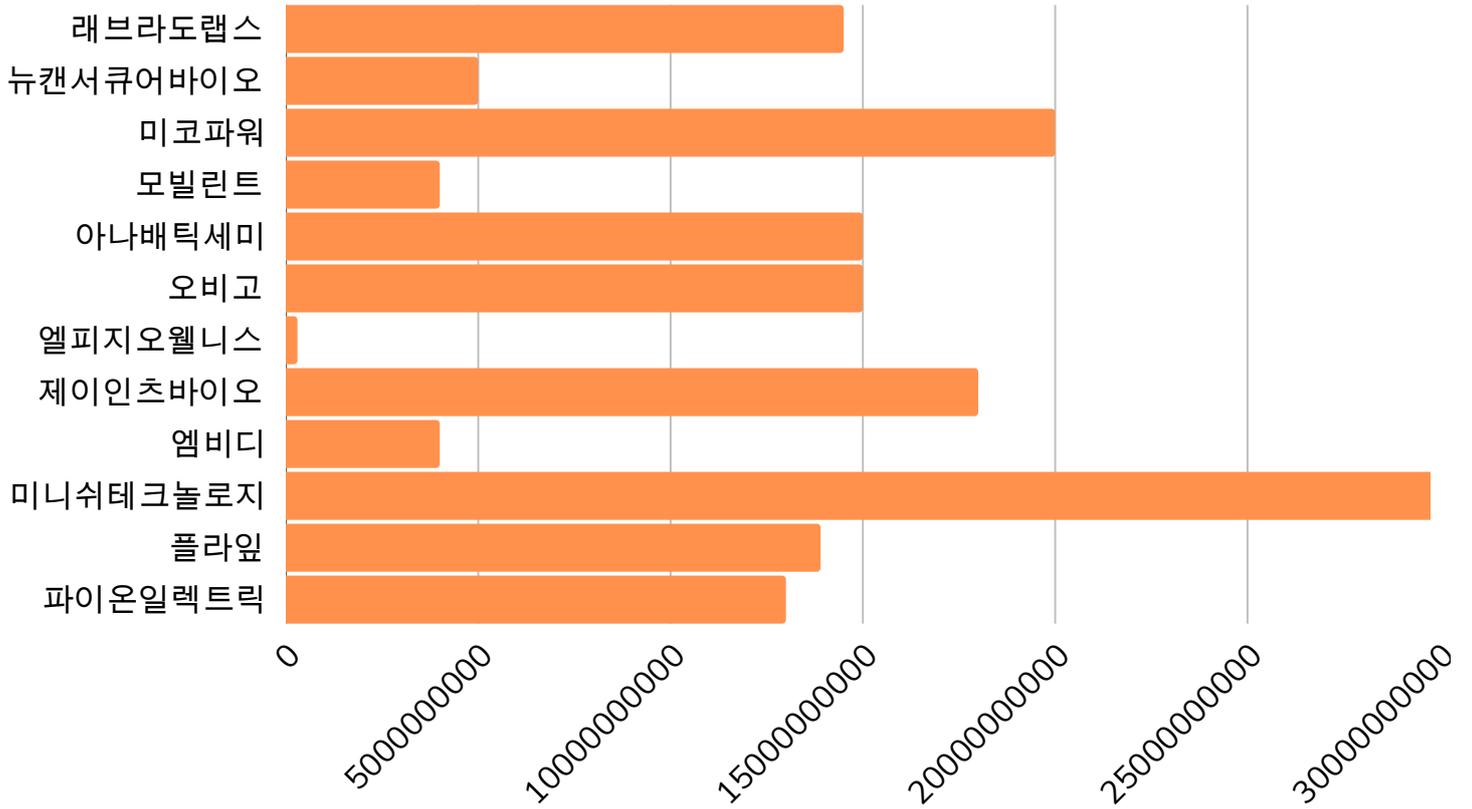
RECIPE FOR STARTUP

STARTUP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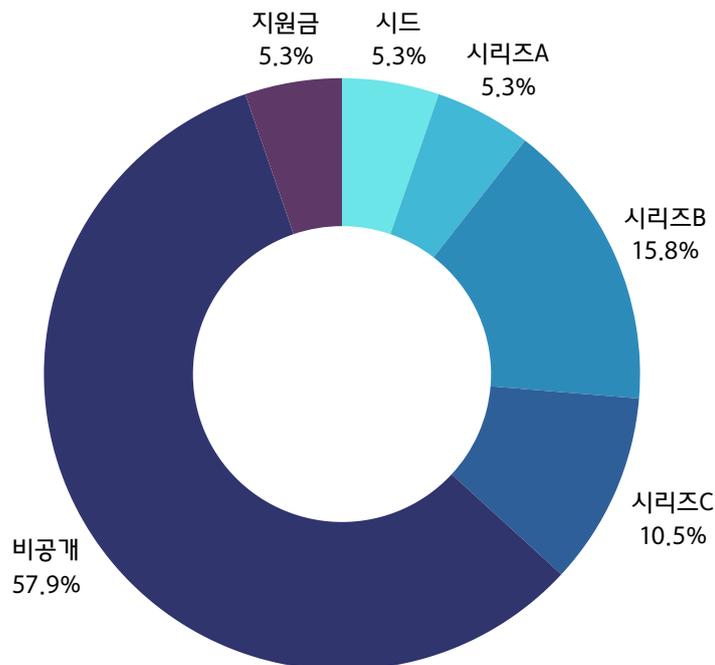
2026년 3월 23-27일 주간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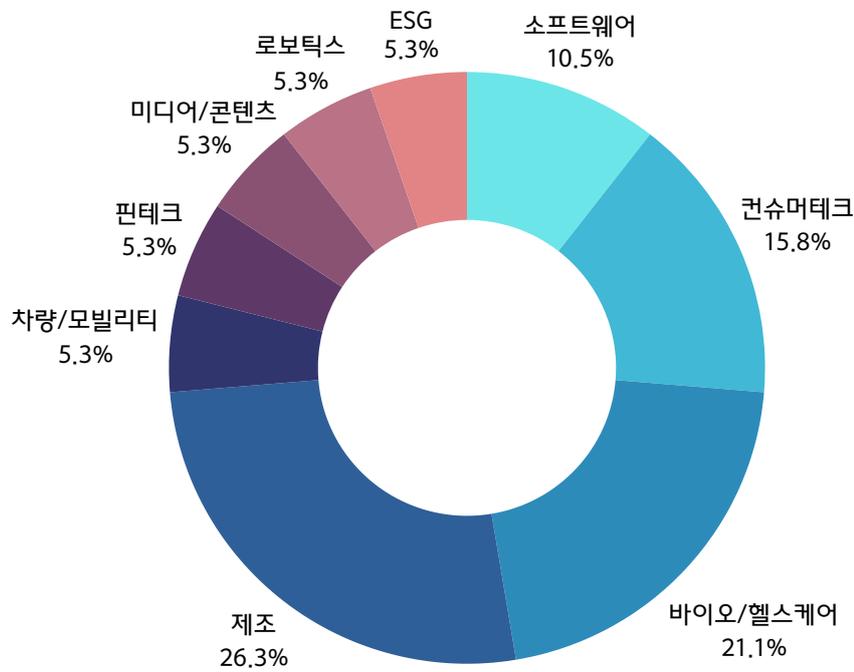
● 투자금



2026년 3월 23~27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19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12개 기업이 1,427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 규모의 경우 비공개가 절반 이상이었지만 시드자 지원금, 시리즈A 외에 시리즈B 15.8%, 시리즈C 10.5% 등 성장 단계 투자가 눈길을 끌었다. 분야별 투자 규모를 보면 제조사 26.3%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헬스케어 21.1%, 컨슈머테크 15.8%, 소프트웨어 10.5% 순을 나타냈다.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주요 투자 유치 기업을 보면 치아 복원 솔루션 기업인 미니쉬테크놀로지가 300억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기업인 미코파워가 200억원을 추가 유치하며 1,163억원 규모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비소세포페암 경구용 치료제 기업인 제이인츠바이오(180억),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아나벤틱세미(150억),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비고(150억) 등도 눈길을 끌었다.

래브라도랩스 : 145억원 시리즈B

 LABRADOR LABS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기업 래브라도랩스가 145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확보하며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낸다. 이번 라운드에는 신한벤처투자, DS자산운용, 포스코기술투자, 스톤브릿지벤처스 등 주요 투자사가 참여했으며, 전략적 투자 성격도 더해져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 개발, 인재 확보, 북미 중심의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래브라도랩스는 SCA 솔루션, SBOM 교환 플랫폼 '래브라도 SCM', 서버 취약점 관리 솔루션 '서버케어' 등 공급망 보안 전 영역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자체 AI 모델 '래브라도 LLM'을 적용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탐지 정확도를 높이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 회사는 개발 단계 보안까지 고도화해 고객의 오픈소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AI·보안 엔진 개발 인력부터 영업·마케팅까지 전 직군 채용을 확대해 성장 기반을 다진다. 래브라도랩스는 국내 고객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공급망 보안 전문 기업으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캔서큐어바이오 : 50억원

 NCC-Bio

국립암센터 연구진이 설립한 바이오벤처 뉴캔서큐어바이오가 5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인터밸류파트너스, 동유기술투자, 에이스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등 주요 벤처캐피탈이 참여했다. 투자자들은 난치성 췌장암을 겨냥한 신약 후보물질의 독창적 기전에 주목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확보된 자금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상 시험에 투입돼 연구 속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로 뉴캔서큐어바이오가 난치성 암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한층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코파워 : 200억원

 MiCoPower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전문기업 미코파워가 총 1163억 원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근 한국산업은행이 200억 원을 후속 투자하며 자금 조달에 힘을 보탤고, 이로써 당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미코파워의 독자적 기술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평가한다. 확보된 자금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로 미코파워는 SOFC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공고히 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빌린트 : 40억원 시리즈C



AI 반도체 설계 기업 모빌린트가 시리즈C 라운드에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로부터 40억원을 투자받았다. 모빌린트는 엣지 서버와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투자로 모빌린트는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처리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모빌린트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나배틱세미 : 150억원 시리즈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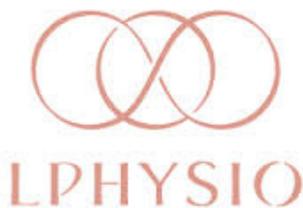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반도체 전문 스타트업 아나배틱세미가 시리즈 A 후속 투자에서 총 15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기존 투자자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JB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으며, IBK기업은행, iM투자파트너스,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새롭게 합류했다. 2024년 설립된 아나배틱세미는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셀을 실시간 모니터링·밸런싱하는 핵심 부품인 아날로그프론트엔드(AFE) IC 'ABS8210'을 개발해 양산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핵심 기능을 일체화한 솔루션을 선보이며 해외 기업이 장악한 BMS 시장의 국산화를 이끌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창업자 정세웅 대표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에서 반도체·배터리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2025년 아날로그 설계 전문기업 씨자인을 합병하며 기술력을 강화했다. 이번 투자로 ABS8210 양산 준비와 차세대 제품 개발이 동시에 가속화될 전망이며, 아나배틱세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BMS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비고 : 150억원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업 오비고가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확정하며 피지컬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키움프라이빗에쿼티와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참여했으며, 무이자 조건으로 자금이 조달됐다. 투자자들은 오비고가 20여 년간 축적한 브라우저 기술력과 SDV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실물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피지컬시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가치가 기술력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오비고는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피지컬시 분야에서 전략적 M&A를 추진한다. 앞서 방문정비 플랫폼 '카랑' 인수를 통해 자동차 관리 영역으로 사업을 넓힌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특정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을 확보해 다양한 산업군으로 AI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산업용 피지컬시 브라우저 '볼트'를 중심으로 방산·조선·로봇 등 고정밀 산업의 SDx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상 AI 콘텐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매출 확대에 나선다. 카랑 기반 AI 차량 관리, OEM 전용 방문 정비, 보험사 연계 AI 서비스 등 수익 모델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오비고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차량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지능화를 이끄는 피지컬시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엘피지오웰니스 : 3억원



체형관리 장비 전문기업 엘피지오웰니스가 스타에셋파트너스로부터 3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총 4억 원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 이번 투자는 '케이뷰티스타 SAP 개인투자조합 1호-P'를 통한 집행으로, 지난해 진행된 1억 원 선행 투자에 이어 클럽딜 방식으로 이어졌다. 엘피지오웰니스는 LPG CELLU M6 ALLIANCE, 써마웨이브 등 체형·피부 관리 장비를 주력으로 하며, 직영센터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기기와 서비스 패키지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구조를 갖췄다.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건강기능식품과 이너뷰티 제품을 결합한 토털 케어 모델을 구축하며 웰니스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타에셋파트너스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경영진을 높게 평가해 후속 투자를 결정했으며, 엘피지오웰니스는 이를 기반으로 웰니스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이인츠바이오 : 180억원 시리즈C



비소세포페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이인츠바이오가 시리즈C 라운드를 통해 180억 원을 확보하며 기업가치 1100억 원을 인정받았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벤처캐피탈과 유한양행이 참여했으며, 사실상 프리 IPO 단계로 평가된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청구할 계획이다. 제이인츠바이오는 2023년 유한양행과 43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4세대 티로신 키나아제 표적 항암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존 3세대 약물이 내성과 재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제이인츠의 기술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설립 초기부터 6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참여하며 임상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연세대 출신 조안나 대표가 창업한 제이인츠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가운데 유망한 IPO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엠비디 : 40억원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기업 엠비디가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4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을 마쳤다. 지난해 기술성 평가를 재차 통과한 이후 예비심사 청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자금 확보와 일정 정비를 동시에 마무리하며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엠비디는 3D 세포배양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원기업새빛펀드로부터 165억 원을 유치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로 기업가치는 약 750억 원 수준에서 형성됐다. 회사는 특례 상장 절차를 본격화하며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

미니쉬테크놀로지 : 300억원



치아 복원 솔루션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가 VIG파트너스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며 약 20%의 지분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기존 주주 지분 매입과 신규 자금 투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 재원은 VIG의 5호 블라인드펀드에서 조달된다. 미니쉬테크놀로지는 치아 삭제를 최소화하고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복원 기술을 기반으로 초정밀 가공과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술을 접목해 치료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AI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수복물 운반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의료물류와 운영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미니쉬테크놀로지는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장을 위한 자금력을 확보했으며, 치과 복원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플라잇 : 139억원 시리즈A



AI 기반 양팔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 플라잇이 약 139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과 금융 투자사가 참여했으며, 추가 투자도 진행 중이다. 플라잇은 기존 자동화가 어려웠던 제조업의 복잡한 조립·체결 공정에 피지컬 AI를 접목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양팔 로봇과 AI 제어·학습 시스템을 결합해 다양한 조건에서도 정밀한 작업 수행이 가능하며, 일부 제조라인에서는 이미 현장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차세대 양팔 로봇 'V2' 양산체계 구축, AI 학습 인프라 확충, 인력 채용 등에 투입된다. 특히 2축 허리 구조를 도입해 작업 범위와 유연성을 확대, 복잡한 공정에도 대응 가능한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언어 기반 제어 모델과 조립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현장 최적화된 로봇 지능을 구현, 빠른 자동화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투자로 플라잇은 제조 자동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파이온일렉트릭 : 130억원 시리즈B



차세대 전력망 안정화 기술을 개발하는 파이온일렉트릭이 13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두산인베스트먼트와 디쓰리뷰빌리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SKS PE 등이 새로 참여했으며, 누적 투자금은 시리즈A를 포함해 268억 원에 이르렀다. 회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그리드 포밍 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변전소 실계통 연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술 신뢰성을 입증했다. 전력거래소의 제도화 추진과 ESS 의무화 가능성이 맞물리며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는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보령 지역에 태양광 연계 ESS 기반 전기차 급속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간 체크 포인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시작...추진 방향은?=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하고 이 중 7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선발해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선배 창업자 멘토링과 AI 솔루션 지원, 500억 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창업 열풍을 확산시키는 게 목표다. 프로젝트는 26일부터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방향> 예비창업자부터 재창업자까지 인재 5,000명을 선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창업자 70% 이상으로 선발. 국내 스타트업 AI 솔루션을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부가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성장 지원. 단계별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에게 1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하고 집중 육성을 위해 500억원 규모 창업열풍펀드 조성. 100여 개 전문 보육기관이 참여, 창업가 선발부터 육성까지 전 과정을 관리. 토스, 뽀빠리, 리벨리온 등 성공 선배 창업가 500여 명이 전담 멘토단으로 참여. 창업

가, 보육기관, 멘토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생태계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플랫폼 구축.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하고 재참여 시 우대 혜택 부여. 향후 AX, 방산, 기후테크 등 분야별 모두의 챌린지와 지역 성장을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순차적 발표 예정

2026년 3월 23-27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래브라도랩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145억원	시리즈B	신한벤처투자, DS자산운용, 포스코기술투자, 스톤브릿지벤처스, 코리아에셋, 티케이인베스트먼트, 노보섹인베스트먼트
키뮤트	데일리 뷰티 솔루션	비공개	시드	하임벤처투자
조코딩에이엑스파트너스	AI 재설계 솔루션	비공개	기타(비공개)	프라이머
뉴캔서큐어바이오	항암제 개발	50억원	기타(비공개)	인터밸류파트너스, 동유기술투자, 에이스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셀락바이오	바이오 에스테틱	비공개	기타(비공개)	더파운더즈
미코파워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200억원	기타(비공개)	산업은행
아일비스	산업용 비전 AI 솔루션	비공개	기타(비공개)	와이앤아처
오비고	모빌리티 라이프 AX 플랫폼	150억원	기타(비공개)	키움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파트너스
아나백텍세미	배터리 관리시스템 반도체	150억원	시리즈B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JB인베스트먼트, IBK기업은행,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코프로파트너스
모빌린트	AI 반도체 설계	40억원	시리즈C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엠티지	소재·접착 솔루션	비공개	기타(비공개)	킹고스프링
초이스포우먼	여성 웰니스 언더웨어	비공개	인수합병	더퓨처
프리핀스	렌탈전환(RX) 금융 인프라	비공개	기타(비공개)	알란테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엘피지오웰니스	체형관리 스튜디오	3억원	기타(비공개)	스타에셋파트너스
제이인츠바이오	경구용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180억원	시리즈C	유한양행
엠비디	3D 세포배양 플랫폼	40억원	기타(비공개)	

미니쉬테크놀로지	치아 복원 솔루션	300억원	기타(비공개)	VIG파트너스
더그림엔터테인먼트	웹툰 제작사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플라워	양팔로봇	139억원	시리즈A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스틱 벤처스
파이온일렉트릭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130억원	시리즈B	두산인베스트먼트, 디쓰 리쥬빌리파트너스, 삼천 리자산운용/SKS PE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